

『문법 교육』 제18호(2013.04), 한국문법교육학회

수능 국어영역 개편에 따른 학교 문법교육의 강화 방안*

김종술 · 권경일

차례

1. 들어가는 말
2. 고등학교 국어 문법 교육의 현황
3. 고등학교 국어 문법 교육의 문제점
4. 학교 국어 문법 교육의 강화 방안
5.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공통 교육 과정 ‘국어’ 과목 중에서 ‘읽기’와 ‘문법’ 영역을 심화·발전 시킨 2009 개정 ‘독서와 문법 I’의 교육과정에서는 ‘문법’의 성격을 언어에 내재하여 있는 원리와 규칙이며, 국어 문법은 개별 언어로서의 국어에 내재해 있는 원리와 규칙을 가리키며, 이러한 원리와 규칙은 언어활동에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저 지식 체계라고 하고 있다. 또한 국어 문법은 국어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국어를 통합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국어 능력을 기르는 데

* 이 논문은 한국문법교육학회 제18차 전국학술대회(2013.2.23)에서 주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임.

기여하고, 문법 능력은 국어 능력의 토대로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등과 관련을 맺으며, 국어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우고 국어 의식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고 하였다¹⁾.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독서와 문법 I II’의 목표를 다음(1),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독서와 문법 I의 목표

- 가. 독서의 본질과 국어의 원리 및 규칙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 나. 글을 읽는 목적과 글의 특성에 맞게 독서할 수 있는 기능을 익힌다.
- 다. 실제 국어 생활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문법 능력을 기른다.
- 라. 가치 있는 다양한 글을 풍부하게 읽는 태도를 기르며,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를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2) 독서와 문법 II의 목표

- 가. 독서의 본질과 국어의 원리 및 규칙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 나. 독서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글을 능동적으로 독서한다.
- 다. 실제 언어 사용을 위한 국어 규범을 익히고 국어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탐구한다.
- 라. 가치 있는 다양한 글을 풍부하게 읽는 태도를 기르며,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를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기른다.

위 (1)과 (2)의 목표에서 보듯이 ‘독서와 문법 I’ 과목에서는 독서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독서 기능을 신장하고 국어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국어생활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독서와 문법 II’ 과목에서는 ‘독서와 문법 I’ 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목적·제재·시대·지역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글을 풍부하게 읽는 것과 국어의 규범을 익히고 국어의 변천과 미래를 탐구하는 데에 교육의 중점을 둔다.

1) 2009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학기술부(2010).

교육과정에 나타나 있듯이 국어 문법은 국어 능력의 토대가 되며 국어 과목의 모든 분야와 관련을 맺고 있는 언어활동의 기저 지식 체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등학교의 국어 문법 교육은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되어 왔다. ‘문법’ 하면 일단 학생들은 따분하고 재미없으며, 수능시험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과목으로 받아들여 왔으며, 문제집에 나오는 최소의 문제 정도만 학습하려는 것이 고등학생들의 의식이었다. 국어 교사들도 문법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국어 문법 과목이 수능에서 반영 비중이 낮다는 이유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경시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변화에 따라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관심도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표면적인 변화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과목별로 변화하게 될 문항 형식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어떤 영역을 어떻게 대비해야 효율적인가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학교 국어교사들도 문법과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개편된 국어영역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등학교 현장에서 문법 교육 강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 볼 때, 문법 교육에 대한 성찰의 출발은 교육의 본질이나 문법의 본질에 대한 자각보다는 그 중심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변화, 즉 국어영역의 문법 문항 수 증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5월에 실시한 201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예비 시행 문제의 경우 총 문항 수 45문항 중, 국어영역의 A형에서는 문법 문항이 5문항, B형에서는 문법 문항이 6문항 출제되었다. 기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언어영역에서 총 50문항 중 어휘에 국한된 2문항이 출제되던 것과 비교하면 이는 총 문항 수 대비 3배 이상의 양적 증가로서, 외형적으로도 수능에서 문법 영역의 비중이 본격적으로 증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수능 시험에서의 변화와 더불어 국어 문법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현실을 대하면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국어영역 요소별 평가 문항 수가 갖는 의미와 그것이 고등학교 국어 과목 교육과정의 편제에 미치는 영향, 교사와 학생의 교과목에 대한 인식의 관련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교육 현장에서의 고등학교 국어 문법 교육의 실상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국어영역의 문법 문항 수와 교육과정 편제와의 관련성, 학생들의 문법 과목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러한 교육 현실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수능 국어영역의 개편과 함께 나타난 교사와 학생의 문법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문법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고등학교 국어 문법 교육의 현황

2.1. 수능 개편 이전의 수업 내용

문법 과목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어휘·어법에 국한된 형식으로 문항 수가 적게 출제되었고 국어 과목의 다른 영역에 비해 출제 비중이 낮았다. 또한 교사와 학생들에게 문법 교육은 딱딱하고 재미없는 수업으로 인식되었으며 문법을 심화 학습하지 않아도 의사소통과 수능 문제 해결에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서 낮은 선택률을 보였다. 이는 특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언어영역에서 어휘·어법 문항 수가 50 문항 중 2문항에 불과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기존 수능에서 듣기(화법)의 경우 5문항이 출제되었으나 유형화된 문항이 출제되었으므로 모의교사의 듣기 문항이나 교육방송(EBS) 듣기 교재의 실전 문제 연습을 통해 수능 준비가 가능했다. 반면 2012년 수능의 경우에 독서와

문학은 각각 21문항, 17문항이 출제되었으며 배점도 100점 만점의 75점이나 되었다. 작문의 경우 5문항이 출제되었다. 기존 수능의 언어영역 과목별 문항을 간략하게 살펴보다라도 문법 과목의 문항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법 1문항, 어휘 1문항이 고정적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문법 과목의 선택은 경시될 수밖에 없었다. 평가가 교육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른바 세환 효과(wash back)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현실적 중요성과 맞물려 중등교육에서는 매우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²⁾.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2012학년도까지 진행되어 온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의 국어 과목 수업은 거의 모든 시간에 교과서 중심의 수업보다는 언어영역 실전 문제 풀이 위주로 문제 풀이 방식 수업이 이루어졌다. 특히 수능 언어영역에서 교육방송(EBS) 교재와의 연계율이 높아진 이후에는 정규 교과 시간과 방과 후 보충 수업 시간 모두 교육방송(EBS) 교재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져 왔다. 교과 수업 시간에 교과서는 아예 다루지 않거나 3, 4월까지만 교과서를 다루고 수능 시험까지의 나머지 수업 시간에는 부교재 중심으로 실전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수업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문법에 대한 안배는 고려되지 않고 문학, 비문학, 쓰기 영역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문법 과목이 3학년에 편제된 경우에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문법 용어조차도 낯설어하는 결과가 생기게 된 것이다.

필자가 재직하는 고등학교의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법 과목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간단한 설문(자유 기술식 설문) 형식으로 교과 성적 상위 20%의 학생들과 중위권 50%, 나머지 하위권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2가지 질문을 해보았다.

첫째, 문법 과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주세형(2008:280쪽)

둘째, 문법 과목에 대한 학습 노력이 문제 해결력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위의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통해 문법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첫째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문법 과목이 너무 어렵다. 공부해야할 요소가 너무 많다.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둘째 질문에 대해 상위권 학생들의 답은 “문법 공부를 하면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공부를 하지 않아도 문제 해결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주어진 원리만 잘 보면 풀 수 있기 때문이다. 문법 과목에 대해 공부해야할 요소는 많지만 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많았다. 중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의 대답도 비슷했다. 차이가 있다면 “공부하기 어렵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국어 과목 중 가장 재미가 없다.”라는 내용도 다수였다.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국어 문법 과목 자체가 학습자의 인식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교과 특성상 문법 과목이 학습 흥미를 유발시키기보다는 재미없는 과목이라는 인식을 주며, 학습해야할 요소가 많다는 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위권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볼 때, 기존의 수능 문항 형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문법 과목에 대한 심화된 학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기존 수능 언어영역의 문법 문항 형식이 <보기>를 활용한 탐구 학습 형식으로 출제되면서, 문항 자체를 탐구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식으로 고정되어 왔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교사 입장에서도 이제까지는 문법 과목이 수능 출제 비중이 크지 않다는 이유와 학생들이 흥미 없어하는 과목이라는 이유로 체계적인 수업을 하지 않았거나, 교수법 연구와 개발에도 소홀

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하여 수능 문제 해결 요령에 치우치는 수업을 하거나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 문제를 분석하여 자주 다루어지는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입시 위주의 문법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2.2. 수능의 변화와 수업 내용 변화

201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부터 행해지는 수능 개편 방향이 발표된 이후 국어 과목 수업에 대한 설계 및 계획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문제 풀이 위주의 부교재 중심 수업 방식이 교과서 중심 수업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특히 문법 과목 수업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개정 수능이 학교 교과 수업을 중시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교사와 학생 모두 교과서 중심의 수업이 필수적이라는 인식과 문법 과목의 수능 비중 증가로 인해 문법 교육이 중요하다고 공동적으로 인식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국어영역의 평가 요소는 크게 화법, 독서, 문법, 문학, 작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국어 과목 중 심화 선택 과목으로 문학, 독서, 작문 과목을 주로 선택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는데 화법이나 문법은 선택률이 매우 낮았다³⁾.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교교육과정 편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출제 영역의 비중을 크게 반영한다. 국어영역 문법 문항 수의 증가는 곧바로 학교 현장에서 입시 준비를 하는데 큰 변화를 가져 왔으며 특히 문법 과목에 대한 준비도가 매우 커지는 현상을 낳았다. 2013학년도 국어 과목의 편제를 인문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 2학년 과정에 문학 I, 독서와 문법 I 이 편성되어 있고 3학년 과

3) 朴德裕, 현행(제7차) 文法 교과서 내용 분석(문법 교육 제1호, 2004)에서 ‘인천시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 관련 교과 선택 비율(2003년도)’를 보면 인문계 55개교 중 문법과목을 선택한 학교는 7%에 불과 했으며, 실업계는 0%이었음.

정에 문학Ⅱ, 독서와 문법Ⅱ, 화법과 작문Ⅰ, Ⅱ가 편성되어 있다. 기존 수능 체제에 따른 교육과정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국어 과목의 심화 과목이 소외되는 과목 없이 모두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운영은 개별 과목으로 존재하던 독서, 문법이 독서와 문법(Ⅰ, Ⅱ)으로, 화법, 작문이 화법과 작문(Ⅰ, Ⅱ)으로 통합되면서 심화 선택 과목 모두를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2학년도 12학년까지 적용되던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 모형을 보면 기준 단위가 화법(4), 독서(8), 작문(8), 문법(4), 문학(8)로 화법과 문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 이수 기준 단위가 낮았다. 그러나 2012학년도 현재 10, 11학년 적용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 모형을 보면 화법과 작문Ⅰ(5), 화법과 작문Ⅱ(5), 독서와 문법Ⅰ(5), 독서와 문법Ⅱ(5), 문학Ⅰ(5), 문학Ⅱ(5)가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학교자율과정(선택이수단위)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운영 단위도 2012학년도 12학년까지 적용되던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는 기준 단위에 맞추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2012학년도 현재 10, 11학년 적용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는 Ⅰ 과목 5단위, Ⅱ 과목은 5(6)단위로 운영되어 기준 단위에 거의 일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실질적인 수업 활동에서 독서와 문법 과목의 경우 독서에 대한 교수-학습과 문법에 대한 교수-학습의 시간 배분이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이전 교육과정 운영과 비교하여, 문법 과목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1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국어영역의 과목별 문항 수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고등학교 국어 문법 교육의 문제점

3.1. 문법 지도상의 문제점

3.1.1.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교육 현장에서는 교과 수업을 중시한다는 취지의 수능 개편으로 학교 수업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반응이 크다. 그러나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있다. 특히 3학년에 편제된 과목의 경우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교수-학습과 교육방송(EBS) 연계 교재를 함께 다루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심화 선택 과목에 대한 교과서 중심의 충실한 수업에 많은 제한을 받는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교육방송(EBS) 연계 교재에 대한 학습을 학생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법 과목의 경우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과목으로서, 탐구 과정을 통해, 학생 스스로 문법의 원리를 터득하려면 교사의 안내와 조력이 많이 필요하다. 학습자나 학부모는 학교 수업 시간에 수능 연계 교재를 모두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하는데, 학교 현실에서는 결국 이들의 요구를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3학년 과정에 편제된 문법Ⅱ 과목의 경우 수업의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3.1.2. 교사를 위한 보다 체계화된 문법 지도서의 부족

교사를 위한 문법 지도서는 출판사별로 나와 있는 교사용 지도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법 과목의 학습 요소, 지도 요소, 교수법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어떤 문법교과서를 가르치더라도 교사가 재구

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도서의 개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교사들조차도 문법 수업에 대해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문법 수업 역시 딱딱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문법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매년 문법 과목만 가르치지 않는다. 해마다 과목을 달리 맡을 수도 있고, 1학과 2학기에 담당 과목이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별로 선택한 문법 교과서의 해설서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문법 과목을 지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범적인 지도서가 제공됨으로써 문법 과목 지도에 대해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한데, 현실에서 이를 충족하는 지도서를 찾기가 어렵다. 지도 요소에 따른 효과적인 수업 모형이 많지 않으며 그로 인해 수업에 변화를 주지 못하여 천편일률적인 강의식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수업의 반복은 결국 학생들의 지루함, 무관심으로 이어져 문법 교육의 정상화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3.1.3.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문법 학습 자료 부족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학습 동기를 유발 할 수 있는 학습 자료가 필요하다. 문법 과목과 관련한 학습 자료들이 대개 천편일률적이어서,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할 요소가 부족하다. 학습에 대한 흥미는 곧바로 학습 동기 유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문법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탐구 학습 모형의 교과서 탐구활동 문제뿐만 아니라 문법 과목 내용 요소를 학습하는 데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다. 문법 과목에 대한 학습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기 부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학습 효과 또한 극대화하기 어렵다.

3.1.4. 교과서의 용어나 설명 방식의 혼선

고등학교 문법교과서는 교육과정을 토대로 교과서의 내용이 조직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출판사의 문법교과서라고 하더라도 학습 요소는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간혹 용어 사용의 상이함으로 인해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굴절 접사’라는 말을 사용하는 교과서가 있는데, 이 경우 ‘접사’의 개념부터 혼란이 생기기 시작한다. 국어 문법이 학문적이건으로 인해 학자에 따라서는 다양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고등학교 문법 과목이 갖는 규범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 문법이라는 범주에서 문법 교과서의 내용이 벗어난다면 이러한 현상은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국어 문법 영역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설명 방식의 일관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2. 문법 교육 약화로 인한 문제점

3.2.1. 문법 문항의 정형화와 문법 학습 동기 약화

그동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언어영역에서 문법 문제는 어휘 1문제, 어법 1문제가 탐구 학습 모형에 근거하여 정형화된 형식으로 출제되어 왔다. 그동안 출제되었던 문제들의 문두 형식의 예를 들면 다음 (3)과 (4)와 같다.

(3)

12. <보기>와 같이 적절한 단어를 선택한 후 각 단어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09학년도 수능 언어 홀수 12번) (생략)

(4)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 친 두 단어의 의미를 한 단어에 담아 표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8학년도 수능 언어 홀수 11번) (생략)

위의 두 문항은 모두 <보기>의 탐구 과정을 거쳐 이해한 후, 문두에 따라 선택지를 탐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문항의 형식은 다음 (5), (6)과 같은 2009 개정교육과정의 교수·학습 운용과 평가 방법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

(5) 고등학교 ‘문법’의 교수-학습 운용

‘학습자가 다음과 같은 절차로 탐구학습을 수행하여 문법 규칙이나 원리를 찾아 낼 수 있게 지도한다.

가. 주어진 자료에 대한 논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제기한다.

나. 해당 논제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한다.

라. 자료를 이용하여 합리적 과정에 따라 규칙이나 원리를 도출한다.

마. 도출된 규칙이나 원리의 적절성을 확인하거나 반례를 든다.

(6) 고등학교 ‘문법’의 평가 유의 사항

가. 말하기나 쓰기의 표현 활동과 읽기 자료를 통한 이해 활동 등 다양한 국어 활동을 통해서 문법 능력을 평가한다.

나. 단어나 문장 자료뿐만 아니라 담화 자료를 풍부하게 활용하여 평가한다.

다.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할 때에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실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라. 주어진 과제에 대해 문제 제기, 가설 설정, 가설, 증명, 결론 도출, 결론의 일반화와 같은 학습자의 탐구 학습 과정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3)과 (4)와 같은 문항 형식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문법 교수-학습 방

4)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 46쪽, 49쪽

법과 평가 방법에 따른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정형화된 문항 형식이 매년 반복되어 출제되면서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에게 문법 학습 동기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학습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의 예로서 이은희(2010)에서는 문법 평가에서의 문법 용어의 사용 방식을 다음의 (7)에서와 같이 세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⁵⁾.

- (7) ㄱ. 문법 용어나 개념어 자체를 답안으로 요구하는 경우
 - 나. 제시문이나 지문, 답지에서 문법 용어가 별도의 설명 없이 사용되는 경우
 - 다. 자료 또는 문두나 답지에서 설명과 함께 문법 용어가 제시되는 경우

위의 유형에서 학습자들이 가져야 할 문법 지식의 정도는 ‘(7)ㄱ>(7)나>(7)다’으로 볼 수 있는데, 평가의 유형이 대체로 (7)다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교수 학습 내용에서 포함된 문법 용어가 지나치게 평가에서 배제되는 것은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편중된 문항 유형이 문법 학습 동기 약화를 가져오고, 학생들로 하여금 문법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능 평가가 학습에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 결과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문항 형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수능의 어휘·어법 문제 유형이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문법 교육이 지향하는 학습자의 탐구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문법 과목의 교수 학습 내용이 학습자에게 내면화되지 못하고 문제 내용에 대한 탐구 능력만 기르는 데 치중된다면 문법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만족스럽게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 이은희(2010:19-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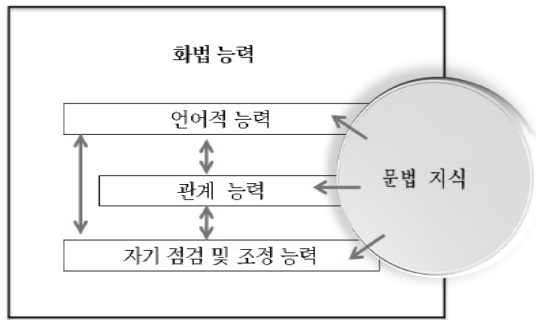
3.2.2. 언어생활에서의 청소년 언어예절 교육 경시

말하기 교육은 화법 영역에서 담당해야 할 것일 수도 있지만 화법의 여러 문제들은 문법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특히 높임 표현과 관련한 말하기는 문법 과목의 높임 표현을 바탕으로 하며, 아무렇게나 내뱉는 은어나 욕설 또한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줌으로써 개선이 가능하다고 본다. 최근의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끼리는 물론이고 손윗사람에게조차도 언어예절에서 벗어난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언어예절 의식의 부재는 체계적인 문법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은주(2010)에서는 화법과 문법의 통합 교육 내용 구성의 중요성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제시하면서 문법 지식이 언어 표현에서 표현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유용하다고 말하고 있다.⁶⁾

6) 전은주(2010:95쪽-96쪽)에서는 문법지식이 화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문법에 대한 지식은 언어의 표현 과정에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의 선택에, 언어의 이해 과정에 맥락에 맞는 의미 해석에 기반 능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문법에 대한 지식은 언어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 담화 상황을 구성하는 인적 요인의 힘과 유대 관계에 따라 어말어미, 선어말어미, 호칭어, 지칭어 등을 선택하여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 역시 문법 지식이 기반이 되지 않고는 어려우므로 문법 지식은 관계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음성언어 의사소통의 정확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평가하여 조정하는 과정에도 문법 지식이 필요하므로 문법 지식은 자기 점검 및 조정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언어적 능력, 관계 능력, 자기 점검 및 조정 능력은 문법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문법 지식에 각각 영향을 받는 이들 능력도 능력 상호 간의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가 음성언어 의사소통에서 문법 요소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실제 말하기와 듣기 과정에 사용하였을 때 표현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유용할 것이다”



<그림 1>

그동안 고등학교 국어과 심화 선택 과목에서 가장 선택률이 낮은 과목이 화법과 문법의 두 과목이었다. 학생들의 잘못된 언어예절이 단순히 공교육의 생활지도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단언하기 전에, 언어 영역에 대한 교과 수업 구성이 어떠한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언어예절은 긍정적인 인간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다툼, 폭력도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 표현에서 비롯된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은 대개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식이나 극단적 상황 제시를 통한 교화, 유도 등에 머물러 있었기에 심각한 문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언어생활에 대한 교육이 문법 교육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왜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가, 왜 이러한 표현은 안 되는가를 청소년들이 스스로 깨닫고 성찰하면서 바른 인성 함양에로의 확산까지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3.2.3. 글쓰기 상황에서의 표현의 무질서

전자매체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요즘의 학생들은 전자매체를 통한 글쓰기를 많이 한다. 수행평가의 과제물이나 교내 글짓기대회 참여 글 등

대부분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글쓰기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잘못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바로잡아 주는 기능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러다 보니 필기구를 이용한 글쓰기에서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의 오류를 비롯하여 어미나 조사의 잘못된 사용 등이 심각하게 나타난다. 고등학교에서 논술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주로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글쓰기 상황에서 보이는 표현의 무질서는 상위권 학생들에게서도 여전히 많이 나타난다. 논술문 첨삭지도를 하다보면 글의 구조나 내용에 대한 첨삭보다 문법 내용 요소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길 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글쓰기 상황에서의 표현의 오류는 학생들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들이 모두 문법 교육이 약화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들로 볼 수 있다. 채팅을 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매체적 상황에서 사용하는 특징의 비문법적 표현에 대해 굳이 규범을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글쓰기 상황에서는 규칙에 맞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음성 언어적 의사소통에서와 마찬가지로 글쓰기를 통한 소통에 있어서도 문법적 규칙에 따르지 않는다면 의사소통의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문법’은 일반적으로 ‘언어에 내재하여 있는 원리와 규칙’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글쓰기 상황에서의 표현의 혼란은 결국 언어에 내재하여 있는 원리와 규칙에 대한 교육이 바로서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4. 학교 국어 문법 교육의 강화 방안

4.1. 수능 문항 수, 문제 유형, 문제 해결 난이도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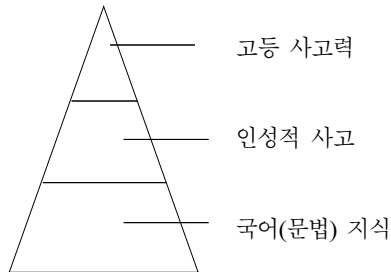
고등학교 교육은 수능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수능 문제에 출제되는 문법의 문항 수, 문제 유형, 문제

의 난이도는 학생들의 문법 과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며, 교사의 문법 수업 계획과 내용 설계에도 영향을 준다. 그동안 문법 과목이 수능에서 본격적으로 출제되지 않았고 출제 문항 수가 적었으며 문법의 일부 영역에 한하여 정형화된 형식의 문제 유형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학교교육 과정에서 문법 과목이 배제되거나 개설되더라도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국어 문법 교육의 강화 방안의 하나로 문법의 수능 문항 수, 문제 유형, 문제 해결 난이도의 조화를 통해 문법 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수능 문법 문항 수의 증가에 대한 고민은 고등학교 국어 심화 선택 과목의 과목 간 위상 측면에서도 이미 고려되었어야 할 문제이다. 학교교육 과정에서의 문법 과목의 배제, 문법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 학생들의 언어 질서 의식의 부재, 글쓰기 능력 부재로 인한 의사소통의 장애 등은 모두 문법 교육의 약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이는 수능에서 문법 과목이 차지하는 위상이 낮음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앞의 3.2.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법이 국어 과목의 다른 영역에 비해 수능에서 적은 비중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문법 과목에 대한 교수법(지도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자료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미 개정된 수능 개편에서 문법 문항 수가 증가됨에 따라 학교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의 변화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수능에서 차지하는 문법 문항 수가 그 과목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며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문법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문법 과목에서 현재 강조되고 있는 탐구 학습 형식의 문항은 학생들의 문법 원리 탐구 과정을 통해 관련 지식에 대해 이해하는 구조화된 형식의 문항이다. 탐구 학습 모형의 문항은 학생들의 문법적 사고력을 높이고 탐구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문법 과목

이 가지고 있는 교과 성격을 고려한다면 문법적 사고력을 요하는 탐구학습 모형의 문항과 문법 지식을 묻는 문항 형식의 조화가 필요하다. 단순화된 지식을 묻는 문제 유형은 배제하되 사고력과 관련 있는 문법 지식 또는 일상 언어생활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문법 지식을 묻는 유형의 문항이 조화를 이루며 출제되어야 한다.



<그림 2>

<그림 2>는 문법의 평가 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평가적 요소를 제시한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독서와 문법(I,II)의 ‘5. 평가’항 중 (4)항을 보면 다음의 (8)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8) ‘문법’의 평가 목표와 내용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가. 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평가한다.
- 나. 국어 생활 속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표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 다.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국어를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를 요소별로 평가하며 구어 능력과 문어 능력을 구별하여 평가한다.

교육과정에 명시된 문법 과목의 성격에서 제시하였듯이 문법은 국어의 모든 분야와 관련을 맺고 있는 기저 지식이다. 기저 지식이 제대로 형성

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언어생활은 물론 상위 지식으로의 발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위의 <그림 1>의 평가적 요소 중 ‘문법 지식’을 맨 아래에 위치하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는 위의 (8)-(가)항을 고려한 요소이다.

‘인성적 사고’는 (8)-(나)를 고려하여 제시한 평가 요소이다. 기저 지식으로서의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일상 국어 생활에서 인성적 사고가 중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전은주(2010)는 담화 상황을 구성하는 인적 요인의 힘과 유대 관계에 따라 어말어미, 선어말어미, 호칭어, 지칭어 등을 선택하여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 역시 문법 지식이 기반이 되지 않고는 어려우므로 문법 지식은 관계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가장 강조되고 있는 인성교육적 요소를 문법 평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도 필요한 요소이다. 국어지식을 활용한 어휘의 정확한 개념에 대한 이해, 문장의 올바른 표현 등은 인간관계의 유지 및 회복과 언어예절에 대한 질서 의식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 사고력’은 (8)-(다)를 고려한 평가 요소이다. 김홍범(2008)에서는 문법이 단순한 암기나 이해를 넘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력으로서 고등사고력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언급하고 문법교육을 통해 고등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⁷⁾ 결국 고등사고력과 창의성은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요소이며 문법 과목의 평가 요소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⁸⁾.

7) 김홍범(2008) 참조.

8) 김홍범(2009)에서는 창의성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늘날 지식 기반 사회에서 창의성의 가치는 지식 생성 능력으로 요약된다. 기존의 정리된 문법 지식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학습자들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문법 교육에 대한 비판은 그 한계를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문법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러한 비판도 일면 논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법 지식이 단순히 선행 지식으로서의 가치만을 추구하면서 국어 사용 능력 신장에만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문법 교육 무용론의 설

<그림 2>에서 제시한 평가 요소에 대한 고려와 함께 국어지식을 묻는 문제의 유형, 문법 과목에 대해 심화 학습을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 문법 과목에 대해 기본적인 학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의 고른 분포가 요구된다. 이러한 수능 문법의 문항 수, 문제 유형, 문제의 난이도의 조화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볼 때, 문법을 가르치는 교사와 문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능 문법 문항이 앞에서 제시한 평가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한 문항의 설계, 수능 문법의 문항 수, 문제 유형, 문제의 난이도의 조화를 고려했을 때 학교 문법 교육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4.2. 문법 교육의 정상화와 학생 인성과 언어 질서 의식 회복

체계화된 문법 교육의 부재는 당장 쓰기, 말하기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사소통의 장애를 가져오는 은어, 욕설의 사용과 이로 인해 학우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른에 대한 언어예절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논술문 작성을 비롯한 공식적인 글쓰기 상황에서도 부적절한 어휘의 사용, 어법에 맞지 않는 비문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인성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문법을 통한 말하기 교육의 병행은 은어, 욕설 사용에 대한 개선과 언어예절을 통한 질서의식의 회복 등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어떠한 매체를 이용하여 글쓰기를 하더라도 소통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문법 지식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0학년 까지 국어교과서의 학습 요소 중 하나로 학생들이 국어교과서 속에서 학습해 온 내용이다. 고등학

득력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문법 교육의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 과제는 ‘창의성 교육’이다.”

교의 학교교육과정에서는 11학년과 12학년 과정에서 심화 선택 과목의 문법 과목으로 개설되어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과목 성격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문법은 국어의 모든 과목과 관련된 기저 지식이다. 이삼형(2010)에서는 ‘문법’ 영역과 ‘작문’ 영역의 통합 문제라는 글에서 문법이 문학, 독서, 작문 과목과 관련하여 모든 텍스트를 구성하는 원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⁹⁾ 따라서 문법 교육은 국어 과목의 학습 요소 중 가장 기본적인 학습이 되며 우선순위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법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법의 성격이 고려되어 학교교육과정 편제 및 운영에 반영되어야 한다. 우선 국어 심화 선택 과목의 학년별 편제를 고등학교 2학년(11학년)에서 문법 과목 이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입시 위주의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문법 교육뿐만 아니라 실생활과 연계된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교육, 올바른 글 쓰기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언어 질서 의식이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

학생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http://kfta.korea.com/>) 교육동영상 ‘욕, 해도 될까요?’에서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몇 가지 실험을 실시하였다¹⁰⁾. 우선 중학교 2학년 149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욕 사용 빈도수를 조

9) 문법을 국어운용의 원리라는 층위라고 설정하면, 국어운용의 원리는 모든 국어 활동의 기본을 제공하는 원리이기도 하면서 문학적 텍스트와 비문학적 텍스트, 구어 텍스트와 문어 텍스트 등 모든 텍스트를 구성하는 원리가 된다. 이렇게 되면 국어교육은 세 개의 서로 다른 층위로 이루어진 체계를 가지게 된다. 그것은 텍스트를 수용하고 산출하는 국어활동의 차원이며, 국어활동의 자료이며 결과인 텍스트 차원, 그리고 국어활동의 기저와 텍스트 구성 원리에 해당하는 국어운용의 원리 차원이 바로 그것이다. 각각의 층위는 서로 독립적이며, 각자는 자기 나름의 체계를 형성한다. 국어교육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텍스트들을 이해하고 만들어내는 활동이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그 활동은 국어운용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어교육에서는 세 층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세 층위는 국어교육의 체계를 이루는 근간이 된다.

10) 학생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http://kfta.korea.com/>) 교육동영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한 결과 10회 미만이 25명, 100회 미만이 23명이었다. 이 학생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주제 단어를 주고 제한 시간 내에 그 단어를 통해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말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하루 100회 이상 욕을 하는 학생 그룹(A그룹)과 하루 10회 미만 욕을 하는 학생 그룹(B그룹)이 큰 차이를 보였다. A그룹에 비해 B그룹이 약 2배 정도의 단어를 더 많이 대답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2개의 제시어를 주고 빈 칸에 알맞은 속담 쓰기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실험에서도 A그룹은 모두 제 각각 오답을 말한 반면, B그룹은 모두 정답을 말하였다. 세 번째 실험은 반대말 쓰기와 반대말 고르는 객관식 문제를 냈는데 결과는 동일했다. 이들 실험의 결과 욕 사용량과 국어 실력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욕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은 어휘력과 인지 능력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카드 뒤집기 게임을 실시해 보았다. A그룹과 B그룹의 각각 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5장의 그림카드를 주고 똑같은 그림 세 쌍을 찾는 실험을 해 보았다. 게임 시작 전 1분의 회의 시간을 주고 10분의 게임 시간을 부여했다. A그룹은 회의 시간에 게임 순번을 정하는데 그친 반면 B그룹은 25개의 빈 칸을 그리고 윗줄부터 차례로 뒤집어 표시해 놓는 등의 전략을 썼다. 실험 결과 A그룹은 게임 과정에서 무계획성, 산만함, 충동적임, 흥분, 포기 of 모습을 보이며 서로를 비난하고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반면, B그룹은 협력, 계획성을 바탕으로 세 쌍의 그림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이 실험 내용을 보면 욕을 많이 하는 학생은 사고력과 친화력, 협력 등이 욕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영상의 내용 중에는 욕의 어원 풀이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학생들은 이 장면을 시청하면서 자신들이 사용한 욕의 어원에 대해 모르고 사용하였으며 자신이 사용한 단어들이 얼마나 좋지 못했가에 대해 깨달았다는 소감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국어 교육에서의 문법 교육은 우리말의 정확한 사용과 순화된 언어 선택의 중요성, 말의 어원을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문법 교육을 통한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이 학생의 사고력과 인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문법 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언어 질서 의식의 회복은 학교교육에서 중시되고 있는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4.3. 문법 지도서와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학교 문법 교육이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문법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수-학습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문법 과목에 대한 지도는 대개 강의식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문법과목의 특성상 설명할 요소가 많고 학생들이 개념과 원리를 암기해야 하는 요소가 많다보니 문학이나 작문, 독서 과목과 비교해 볼 때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점이 많다. 문학은 스토리가 존재하거나 감성적 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접근할만한 제재가 풍부하며, 독서의 경우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이해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제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역시 학생들이 덜 지루해 한다. 작문의 경우 흥미 있는 주제에 대한 글쓰기나 다양한 장르에 맞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문법 과목은 교사가 지도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문법 지도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김홍범 · 이경현(2010)이 제시한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아카데미식 문법토론 교수법에서는 문법의 숙고 과정과 온라인의 비동시성을 최대한 활용한 글쓰기 중심의 문법토론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학문적 논쟁이 가능한 문법 논제를 제시하여 아카데미식 문법토론을 실시하여 이러한 교수법이 갖는 교육적 효과와 교수원리를 보

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토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고 밝히면서 교육적 효과로 다음의 (9)와 같은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9) 첫째, 논리를 철저히 하는 자세를 체득할 수 있다.
- 둘째, 판단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 셋째, 긍정적 경쟁심을 유발하여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해 질 수 있다.
- 넷째, 정보와 지식 구성 능력을 증진시킨다.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아카데미식 문법토론 교수법은 강의식 수업이 아닌 토론식 수업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지루함을 덜 수 있다. 강의식 수업이 다소 수동적이라면 토론식 수업은 스스로 사고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활동하기 때문에 생동감 있는 수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토론식 수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문법에 대한 기초 학습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과 오프라인상의 토론과 온라인상의 토론이 갖는 차이에 유념해야 한다는 점, 문법 학습 요소 중 어떠한 부분에 대해 토론식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사의 몫이 또 다른 부담으로 남게 된다. 이 밖에도 가족이나 교우들의 잘못된 문법 활용 사례 조사하기, 문서화된 텍스트에서 문법적 오류 찾아내기, 문법 퍼즐 게임 등 학교수업 상황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수법들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업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문법 학습 요소별로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측면에서도 문법 과목 내용 요소를 학습하는 데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다. 문법 과목과 흥미를 결합시킨다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이 들 정도로 문법 과목은 재미있게 학습하기가 쉽지 않은 과목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그동안 문법 과목이 소홀히 여겨진 데에는 흥미 있는 문법 학습 자료의 부재라는 악순환의 고리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학생이 학습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습자 수준에 맞는 자료, 참신한 자료가 없이 천편일률적인 자료만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문법 과목은 학생들로부터 관심을 잃게 되고 학습효과 또한 극대화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4.4. 문법 과목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앞의 3.1.1에서 언급한 바와 관련하여 문법 과목의 학교교육과정 운영 부담과 학습자의 학습 부담에 대한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방송(EBS) 교재 연계 학습은 일반 부교재에 비해 학습 교재 가격 부담이 적다는 점과 사교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각을 달리하여 보면 교육방송(EBS) 교재의 대입 수능 연계율이 높아질수록 교실 수업에서 교육방송(EBS) 교재가 주교재가 되고 교과서가 부교재가 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교과 수업시간에 교육방송(EBS) 교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다루어주는 방식의 수업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가치 판단은 수업 방법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대학 입시 준비로만 놓고 보면 매우 현실적인 수업 방식이기 때문이다.

개정 수능이 교과중심, 교과서 중심의 출제를 표방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고등학교 3학년의 교육과정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할 때, 우선 문법 지식의 원리나 법칙에 대한 교과서 중심의 수업이 수능에서의 문제해결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신뢰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방송(EBS) 교재 연계율이 학교 문법교과서 수업 연계율보다 높다는 인식의 틀을 깰 수 있는 교과 중심의 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단순한 문법적 개념이나 지식을 묻는 수준의 수능 문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선행 지식으로서의 가치

가 아니라 문법의 원리와 지식을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데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과 문법의 개념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적용 능력을 평가하되 교과서의 중요성이 각인 될 수 있는 확실성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교육방송(EBS) 연계 교재 수를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국어 과목의 교육방송(EBS) 연계 교재만 해도 4종이며 분량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당년에 출판되는 교재를 연계 교재로 지정하기 때문에 3학년 과정의 학생들은 학습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다른 과목의 연계 교재까지 생각한다면 학생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셋째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법 I 과 문법 II로 나뉘어져 있는 문법교과서의 체제를 수정하여 필수 학습 요소로 구성된 교과서의 재구성을 제안해 볼 수 있다. 기존의 교과서를 통해서도 필수 요소를 추출하여 지도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재 교육과정이 문법 I 과 문법 II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학교 교과 내용 편제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현재의 고등학교 국어 문법 교육의 실상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국어영역의 문법 문항 수와 교육과정 편제와의 관련성, 고등학생들의 문법 인식을 현장의 현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러한 교육 현실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할 문법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법 과목에 대한 수능 출제 비중이 작다는 점과 문법 과목은 딱딱하고 재미없는 수업이라는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등으로 학교교육과정에서 문법 과목은 낮은 선택률을 보였다. 또한 학교교육과정의 국어과 심화 선택 과목의 기본 이수 단위 중 문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 이수 기준 단위가 낮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문법 과목을 경

시하게 되었고 문법에 대한 학습력이 약화되게 되었으며 말하기, 글쓰기 상황에서 소통의 장애를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문법 교육의 문제점을 문법 지도상의 문제점과 문법 교육 약화로 인한 문제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문법 지도상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문법 과목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 교사를 위한 보다 체계화된 문법 지도서가 부족하다.

셋째, 학생의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문법 학습 자료가 부족하다.

넷째, 간혹 문법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설명 방식이 집필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문법 교육 약화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국어 문법 문항이 정형화 되어 문법 학습력이 약화되었다. 둘째, 말하기 상황에서 각종 은어, 욕설이 난무하는 등 청소년의 언어예절 교육이 경시되었다.

셋째, 실제 국어 생활과 문법이 괴리되어 글쓰기 상황에서 표현의 무질서가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통합하여 국어 문법 교육의 강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문법의 수능 문항 수, 문제 유형, 문제 해결의 난이도의 조화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국어(문법) 지식, 인성적 사고, 고등 사고력에 대한 균형있는 평가적 요소를 제안하였다.

둘째, 문법 교육의 정상화가 학생들의 인성 요소 강화와 언어 질서 의식 회복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셋째, 참신한 문법 지도서와 학생이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문법 과목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제시된 문법 교육 강화 방안은 교육과정의 수시 개편 체제와 수능의 개편에 따라 그동안 학교교육에서 소홀히 여겨졌던 문법 과목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 생각해 보아야할 소견이다. 문법이 국어 과목의 모든 분야와 관련을 맺는 기저 지식이라는 점과 문법 과목 교육이 강화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는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며 문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핵심어: 수학능력시험, 문법교육, 문법, 교육과정, 국어지식

참고 문헌

- 학생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http://kfta.korea.com/>) 교육동영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과학기술부(2010), 2009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 김광해(1997), 『국어지식 교육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용석(2006), ‘학교문법’의 정체성에 대하여, 『문법 교육』 4, 한국문법교육학회.
- 김홍범(2008), 문법교육을 위한 탐구 학습 자료 개발 방안 연구, 『겨레어문학』 41, 겨레어문학회.
- 김홍범(2009), 창의성 계발을 위한 문법교육, 『문법 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
- 김홍범 · 이경현(2010), 블렌디드러닝을 활용한 아카데미식 문법토론 교수법, 『문법 교육』 13, 한국문법교육학회.
- 김홍범 · 이경현(2010), 웹블렌디드 토론에 기반한 문법교수법의 원리와 방법, 『문법 교육』 12, 한국문법교육학회.
- 김은성(2012), 문법 교육내용의 표상체로서의 담화, 『문법 교육』 16, 한국문법교육학회.
- 민현식(2006),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과 문법 교육의 과제, 『문법 교육』 4, 한국문법교육학회.
- 朴德裕(2004), 현행(제7차) 文法 교과서 내용 분석, 『문법 교육』 1, 한국문법교육학회.
- 박성호(2013), 『틀린 것을 배우는 아이들』, 한울.
- 성낙수(2004), 국어 문법 교육의 문제점 - 고등학교 ‘문법’을 중심으로-, 『문법 교육』

1, 한국문법교육학회.

송현정(2004), 문법교육의 개선 방안 연구, 『문법 교육』 1, 한국문법교육학회.

신호철(2007), 국어교육의 상보적 통합, 『문법 교육』 7, 한국문법교육학회.

신명선(2006), 개정 문법 교육과정의 지향점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에 관한 연구, 『문법 교육』 5, 한국문법교육학회.

이삼형(2010), ‘문법’ 영역과 ‘작문’ 영역의 통합 문제, 『문법 교육』 12, 한국문법교육학회.

이영주(2007), 통합적 문법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문법 교육』 4, 한국문법교육학회.

이은희(2011), 문법 평가의 현황과 과제-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중심으로-, 『문법 교육』 15, 한국문법교육학회.

전은주(2010), 화법과 문법의 통합 교육 내용 구성, 『문법 교육』 12, 한국문법교육학회.

주세형(2006), 문법 교재 개발의 모형, 『문법 교육』 5, 한국문법교육학회.

주세형(2008), 국어과 평가의 타당도 제고를 위한 문법 교육 방향, 『문법 교육』 8, 한국문법교육학회.

김종술 (충남고등학교)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1동 1513번지

전화번호: 042-479-5931

전자우편: bellsool@naver.com

권경일 (경희대학교)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1

전화번호: 031-201-2284

전자우편: kwonil@khu.ac.kr

투고일: 2013. 03. 30.

심사일: 2013. 4. 01.

게재 결정: 2013. 4. 20.

Abstract**Reinforcing Ways on Grammar Education in High School According to Reforming the Language Part of the Scholastic Aptitude Test**

Kim Jongsool · Kwon Kyung-il

(ChungNam High School · KyungHe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eality of grammar education in high school and problems in connection with the scholastic aptitude test, curriculum and student's recognition of grammar education, and to seek ways solving problems of reality. Until now grammar classes have been regarded as uninteresting studies due to low rate of the scholastic aptitude test, so many students have avoided grammar class and cause to have low ability of speaking and writings. There are four problems in teaching grammar in high school.

- (1) Difficulty in managing curriculum have not been solved.
- (2) It is necessary to make systematic grammar guide book for teacher.
- (3) Grammar study materials to increase to student's interest is lacked.
- (4) There is confusion about grammar terms in textbooks.

Three problems were presented as result of weakening of grammar education.

- (1) Solid type of the scholastic aptitude test cause to students to have low motivation in studying grammar.

- (2) In result, language properties education was neglected in speaking situation.
- (3) There are many misuses in writings.

Three ways were presented in solving the problems and reinforcing grammar education.

- (1) It is necessary to balance the number, type and difficulties of the scholastic aptitude test.
- (2)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normalization of grammar education is needed for building student's right character.
- (3) Useful grammar guide book and teaching-learning materials are needed.
- (4) There need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maintaining grammar classes.

Key words: Grammar Education, the Language Part of the Scholastic Aptitude Test, the Scholastic Aptitude Test, Grammar. Korean Knowledge